

# 이순신 장군과 함께 했던 청년 이영남

이병초 시인, '노랑의 바다' 출간

이병초(웅지세무대 교수) 시인이 역사소설 '노랑의 바다'를 펴냈다. 작가에 따르면 전주 예수병원에서 지인을 문병하러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선충사를 우연히 찾게 됐는데, 거기서 전의인(全義人) 이영남을 만났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마지막 전투를 치른 청년 장수 이영남.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교롭게도 당시 흔한 이름이 영남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7년 동안 이영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다. '난중일기'에 이영남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관직이 60회 이상 나타났어도 그가 어떤 집안의 이영남인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글은 한 사람의 성씨를 찾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라는 불행 속에서 전시했거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점만으로도 같은 이름의 이영남들은 충신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글머리에서 "이영남에 대한 내 관심은 유생의 글줄에 있었다. 그가 순절한 지 무려 200년이 넘는 순조 6년에 송상열 등 전라도 유생 7명이 조정에 상언(上言)한 지점, 초야에 머물러있던 조선 역사의 생명체로 움직이고자 했던 선비들이 이영남의 불꽃 같았던 28년의 삶이 역사에서 제대



이병초 시인 역사소설 '노랑의 바다'

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붓끝을 버린 지점에서 소설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500여 년 전의 일인 데다 이영남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랑의 바다'는 '노랑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잡고 사건의 앞과 뒤를 촘촘히 짰다. 소설 속에는 이영남의 고향인 전주의 풍경이 유려하게 펼쳐지고 그가 무예를 닦았던 모악산도 정답게 다가온다. 반면에 전주 사람들에게 피비림으로 들이닥쳤던 기축옥사가 가슴 아프게 형상화돼 있다. 싸늘한 주검이 돼 한양에 압송된 정여립을 보고 사람답게 다가섰던, 전주부 구이면 출신인 통천김씨 김빙의 모습도 절절하다.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산화했던 병사들 대부분이 백성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소설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이에 대해 소설가 김병용은 "오백여 년 가까이 책갈피 안에 갇혀 있던 청년 이영남을, 책 밖으로 역사 바깥으로 이끌어 낸 소설이다.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한 시인의 붓끝에서 만난다. 거기, 이순신 장군과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다. 거친 바다, 더 거칠게 휘몰아치는 외세의 침탈 앞에 조상들은 목숨을 던져 우리의 바다를 지켰다"면서 "앞으로 남해를 볼 때마다 이영남, 이순신과 함께했던 이름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작가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너나들이 세상을 이루어 평등하게 살고 싶던 조선의 사나이 이영남 장군을 통해 '노랑의 바다'가 조선 역사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뜨겁게 다가가기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 "실제 미래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17일까지 진행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개막한 이래 7월 30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돌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세계적인 이집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최초의 고대 이집트 전시다. 또한 브루클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이집트 관련 유물 94점이 전시 중이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유명한 파라오 중 한명인 람세스 2세의 조각상, 안에 실제 따오기 미라가 들어 있는 아름다운 따오기 관, 3천여 년 전 종교 중심 도시였던 테베의 지도자 파세바 카이엔이페트의 화려한 관 등이 있다. 특히 토 티르데스라는 사람의 관에서 나온 실제 미라



미라 전시장 전경

로,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전시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요즘 날씨에 시원한 박물관에서 진짜 미라와 함께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은 피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전시 관람을 추천했다. 특별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 장수군, '별밤콘서트'로 한여름 무더위 날려요

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서 진행

장수군이 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별밤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별밤콘서트'에는 18개의 동호회가 참여해 10개의 체험프로그램과 8개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산들산들 부채바람과 함께 북캘리 △순수전으로 전하는 캘리 감성 △모자이크 액자 만들기 △탐블러 가방 꾸미기 △향기 담은 디퓨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체험을 원하는 참여자는 1,000원으로 체험쿠폰을 교환한 후 원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된다.

또한 오후 7시부터는 사물놀이부터 난타,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별밤콘서트는 장수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주민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민호 기자

# 전주문화재단 제작 전주 작가 오디오북 '우수상' 패키지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서 최우수 작가 '들꽃상여' 수상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제9회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에서 최우수 작가의 오디오북 '들꽃상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은 출판사에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출간 장려를 독자에게는 우수한 전자책을 제공해 디지털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17개월 간 국내에서 발행돼 유통되는 전자책 중 6월 15일~7월 14일 기간에 접수된 총 128종의 전자출판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1종과 셀프퍼블리싱과 오디오북 분야를 포함한 우수상 5종 등 총 6종의 전자책이 선정됐다.

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독서 시장 개척과 지역 작가와 작품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오디오북 7종 가운데 하나인 '들꽃상여'의 수상은 경쟁한 출판사의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과

경쟁해 이룬 패키지다.

한편,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작가의 희곡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들꽃상여'는 배우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농민군들 이야기가 교차로 진행된다. 우리 지역의 역사이며,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한 편의 목소리극처럼, 라디오 드라마처럼 입체적으로 구현해 냈다.

백옥선 대표는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지역 작가와 지역 문학작품을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오디오북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작가들이 인세를 많이 받길 희망하고 있었는데, 오디오북으로 큰 상까지 받게 돼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제작될 우리 지역 작가들의 오디오북에 심혈을 기울여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절차 착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 절차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실적 기준으로 구분된 총 10개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채용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클린아이잡플러스 등을 통해 공고했다. 서류접수는 10일~19

일까지 방문(대리접수 포함)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채용 절차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후보를 결정한 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